

골프

8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4년만에 한국 찾은 조던 스피스

“훌륭한 대회 기대감 커 한국 문화 알고 싶어요”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 조던 스피스(26·미국)도 4년 만의 방한이 설레는 표정이었다.

스피스는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클럽나인브릿지 스피스에서 진행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CJ컵@나인브릿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2019~2020시즌 첫 대회를 제주도에서 시작하게 돼 흥분된다. 이곳에서 빨리 새로운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준수한 실력과 웅장한 외모가 돋보이는 스피스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플레이어다. 2013년 약관의 나이로 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을 제패한 뒤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까지 달리면서 정상급 프로골퍼로 떠올랐다.

CJ그룹은 2년 전 이 대회를 첫 유치할 때부터 스피스 영입에 공을 들였다. 2015년 프레지던트컵 이후 모처럼 방한한 스피스는 “다행히 스케줄이 맞아 제주도로 올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친구인 저스틴 토마스(26·미국)로부터 이 대회 운영과 환경, 음식 등이 모두 훌륭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나 역시 기대감이 크다”고 밝게 웃었다.

수년 전 명성과 달리 최근 2년간 우승 없이 부진하고 있는 스피스는 끝으로 “우승권을 다룬 지가 오래 됐다. 일단 새 시즌은 일관된 경기 운영이 1차 목표다. 매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 다투고 싶다. 이번 대회에서도 같은 목표를 안고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귀포 | 곽봉준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국내 유일 PGA투어 ‘더 CJ컵’ 첫 우승 위해 뚝뚝 뚫친 코리안 브라더스

선배들이 점찍은 ‘코리안 우승 후보’ 임성재

1회째 토마스, 2회째 캅카 축배 한국 선수들 “이번엔 정상 탈환”
김민휘·안병훈, 임성재 우승 예상
임성재 “제주시 좋은 성적 낼 것”

THE CJ CUP
@NINE BRIDGES
한국인 최초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왕은 안방까지 점령할 수 있을까.

‘만행’ 최경주(49)부터 ‘막내’ 임성재(21)까지 한국남자골프를 이끄는 코리안 브라더스가 사상 첫 더CJ컵@나인브릿지(총상금 975만 달러·약 115억 원) 우승을 위해 뚝뚝 뚫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은 “올해만큼은 한국 선수가 우승하는 모습을 국내 골프팬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의기투합했다.

●정상과 거리 멀었던 코리안 브라더스

우승자가 거금 175만 달러(20억 원)를 가져가는 ‘초대형 머니게임’ 더CJ컵@나인브릿지는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클럽나인브릿지(파72·7241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그간 푸른 눈의 외국 선수들이 매년 트로피를 가져갔다. 2017년 저스틴 토마스(26·미국)가 초대 챔피언이 됐고, 지난해에는 브룩스 캅카(29·미국)가 우승을 차지하며 생애 첫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로 비상했다.

한국 선수들로서는 자존심이 다소 상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유일의 PGA 투어 정규대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야심차게 출범한 무대이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 성적은



임성재(오른쪽 두 번째)가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열린 PGA 투어 더 CJ컵@나인브릿지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성재는 ‘코리안 브라더스’가 뽑은 토종 선수 우승후보 0순위였다. 사진제공 | 더CJ컵

●더CJ컵@나인브릿지 1·2회 대회 결과

2017년 초대 대회		
순위	선수	스코어
우승	저스틴 토마스	9언더파
준우승	마크 레시먼	9언더파
3위	카메론 스미스	8언더파
4위	김민휘	6언더파

2018년 2회 대회		
순위	선수	스코어
우승	브룩스 캅카	21언더파
준우승	개리 우드랜드	17언더파
공동 3위	라파 카브레라	15언더파
	라이언 팔머	

※ 저스틴 토마스, 초대 대회 2차 연장서 승리

2017년 김민휘(27)가 6언더파 282타로 차지한 4위. 지난해의 경우 김시우(24)가 공동 23위로 체면치레를 하는 정도였다.

이처럼 안방에서 기를 펴지 못한 한국 선수들은 15일 대회장에서 열린 공식 기

사회견에서 나란히 정상 등극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각자 우승과 톱10, 톱20 등 다양한 목표를 밝힌 가운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무서운 신예’ 임성재를 우승후보 0순위로 꼽았다.

●동료들의 선택은 임성재

임성재는 루키로 뛴 지난 2018~2019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인 최초로 PGA 투어 신인왕이 됐다. 지난달 감격적인 수상의 기운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이번 대회 직전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정상을 밟으며 생애 첫 PGA 투어 우승 전망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성재와 함께 자리한 김민휘는 “누가 뭐래도 (임)성재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한다. 같이 경기를 해보니가 성재가 확실히 감이 좋다

라. 기대가 된다”고 후배를 치켜세웠다.

결을 지킨 안병훈(28) 역시 “말이 필요 없다. 지난 주 성재가 치는 장면을 봤는데 참 대단하더라. 미국에서 치던 실력이 어디 가겠나. 성재가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거듭었다. 같은 CJ 대한통운의 후원을 받는 김시우와 이경훈(28)의 선택 또한 임성재였다.

이처럼 선배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은 21살 신예는 부끄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임성재는 “(이러한 예상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솔직히 여기 함께한 선수들 중에서 우승이 나왔으면 한다”고 겸손해한 뒤 “많은 팬들께서 오셔서 한국 선수들을 힘차게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나 역시 어린 시절 자란 제주도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며 막대한 애교를 섞어 수줍게 웃어보였다.

서귀포 | 곽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바람 방향 바뀐 6·7번 홀, 우승의 절대 변수

“티잉 그라운드가 옮겨지면서 바람 방향도 바뀌었더라고요.”

국내 유일의 PGA 투어 더CJ컵@나인브릿지가 열리는 클럽나인브릿지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골프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라산 자락 32만여 평 규모의 넓따란 분지를 세심하게 다듬어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

고, 고도의 기술로 잔디를 관리해 언제나 최상급의 코스를 유지하는 곳이다.

이처럼 멋진 풍광을 뽐내는 클럽나인브릿지는 그러나 선수들에게 쉬이 공략당하지 않는 골프장으로도 유명하다. 가장 큰 장벽은 예측 불가능한 바람이다. 2017년 초대 대회부터 바람이 제1변수로 꼽히기는 했지만, 올해의 경우

몇몇 홀의 티잉 그라운드 위치가 바뀌면서 바람 방향은 더욱 종잡을 수 없게 됐다.

제주도가 고향으로 이곳 클럽나인브릿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강성훈(32)은 “6번 홀 티잉 그라운드는 뒤로, 7번 홀 티샷 구역은 우측으로 옮겨졌다. 거리 맞추기도 어려워졌고, 바람 역시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말했다.

2년 전 4위를 기록하며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김민휘(27)

역시 “클럽나인브릿지에서의 경기는 때론 바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바람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중요해졌다”면서 “다행히 페어웨이가 예년보다 단단해져 샷은 조금 편해졌다. 러프 역시 많이 길지 않아 어려움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맞이한 삼다도의 변화무쌍한 바람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서귀포 | 곽봉준 기자

롤러그릴푸드 타코스타크는?

- 한국에 없는 마지막 남은 패스트푸드 빅 아이템
- 세계적 최신트렌드 에스닉푸드 메뉴 공급
- ※ 에스닉푸드: 베트남, 태국, 멕시코 등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국가의 음식
- 소형 냉동제품으로 다양한메뉴 효율적관리
- 유행을 타지않는 가장 핫한 아이템

타코스타크 판매 매장

- 푸드코트 ●학교, 회사 및 공장 등 매점
- 맥주, 커피 전문점 ●백화점 및 마트의 델리매장
- 고속도로 휴게소 ●각종 음식점내 셀프코너
- 놀이동산 및 스키장매장 ●푸드트럭



미국에서 1년에 10억개 이상 팔리고,
한국에는 아직 없는,
패스트푸드 빅 아이템 롤러그릴푸드
타코스타크로 한국판매 개시
소자본으로 대박수익을 창출 할
총판및 대리점주를 모집합니다



■총판및 대리점 지원사항

본사의 영업력으로 개설회기에 지역내 10여개 점수를
설치하여 초기운영지원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취급점 모집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성상을
이루도록 마케팅지원에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 대리점개설시 소자본투자(1,430만원)로 10여개매장 운영효과

- 1)소형매장 사업의 장점
 - 소형스낵의 다양한 많은 메뉴의 준비 가능
 - 냉동 보관으로 재고 관리 및 유통기한 관리 용이
 - 롤러그릴로 손쉬운 조리 가능하며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 않으며 숙련된 조리사가 필요치 않음
- 2)다양한 메뉴 구성
 - 단일구성: 소형 가판대
 - 혼합구성: 대형 가판대 토네이도 브리토,
음료 및 콜라 메뉴 구성



■대리점문의/제품문의

02)3431-9945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2 신천빌딩 3F

www.tacostic.com